

# 크리스천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와 교회의 역할

##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 비바람이 몹시 부는 밤이었다. 우르르 펄. 친동생과는 무심기만 했다. 진기마저 끊긴 출고 긴 겨울 밤. 가족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새벽녘, 아빠-품에 안겨 잠들었던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물었지.

“아빠, 어젯밤 하단님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셨을까요?”

잠시 당황하던 아빠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속삭인다.

“애야, 어젯밤 비바람 친동 반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친한 친구 이 아침을 믿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돌 밖에 없다. 바로 가정과 교회다. 가정은 창조사역의 완성이고, 교회는 구원사역의 절정이다. 가정 안에 사랑과 용서, 은혜와 공화, 구원과 심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가리켜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역시 이러한 가정 같은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사이즈가 아무리 커져도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가정은 축소된 교회,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 부른다.

## # 성경은 이른다.

하나님께서 포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행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민 6:22-27, 매사지 성경)

매일 아침, 자녀들의 머리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해 보면 어떨까?

“환난 날에, 어호와께서 ○○에게 응답하시고 아람의 하나님의 이름이 ○○을(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을(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의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 20:1-2,4-5)

이에서 우리 모두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꾼다. 그런데 과연 우리 현실은 그러할까? 꿈같은 여기에 있다.

## 밀양, 완득이 그리고 도가니

세 영화 모두 베스트셀러를 시작으로 하거나 모티브로 삼았고, 교회와 가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상치 못했던 흥행 역시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밀양〉이 용서를 화두로 던지며 교회에 말을 걸어왔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교회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로.”

이어서 등장한 〈완득이〉에서는 교회가 좀 더 편안하고 익살스럽게 묘사되기도 한다. 담임선생님 일명 ‘똥주’ 좀 죽여 달라는 완득이의 기도. 주인공의 간절함과 상관 없이, 그 자체가 굉장한 유머러스해서 보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모두 웃게 된다. 완득이 담임은 교회에선 진도사로 세상 부정에 맞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불평등을 없애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다. 김보름은 전혀 크리스천 같지 않지만, 그가 하는 일은 분명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밀양〉이 용서를

화두로 던지며

교회에 말을 걸어왔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교회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로.”

〈밀양〉이 말을 걸어왔다면 최근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 〈도가니〉는 다소 시비조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 아동, 터러는 지적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성폭행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이 비성직적이고 비도덕적인 교장선생은 크리스천, 그것도 장로다. 사무 실에는 카타만 십자가와 성경 구절 액자가 버젓이 걸려 있고, 심지어 무슨 배지인 양 금빛 십자가를 옷에까지 달고 있다. 기해자들이 재판 받는 법원 앞에서 교장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사단이라고 몰아가기도 한다. 영화 속 가정은 일탈과 상처, 갈 데 가지 간 타락의 모습을 보인다.

보다 인터캐는 진,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불편한 '현실'이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A양 음란 동영상의 주인공은 유수한 기독교 NGO 홍보대사였다. 이틀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의 일단 자살 소식에 기독교인들은 더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그들이 기독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혼율에서도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로, 전체평균 45%에 육박한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인의 가정은 건강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무너뜨리는 통계다.

### 이제 교회가 나서야 한다

메이스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교회 사역에서 아쉬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교회라면' 가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 어떤 프로그램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에서 만연된 기독교인 가정생활의 실패는 복음을 전하는 데 분명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내가 대만에 온지 여러 해에 헤어 헤어 각직로 널리 다니며 인심이 어떠한 것과 풍속이 어떠한 것을 대강 열람하니 매우 고마운 일도 많고 또 심히 섬섬하고 분한 일이 몇 가지 있삼테다... 남보기에 섬섬한 일과 분한 일은 큰 흠이요, 큰 수직인즉 불가를 고쳐야 할 터인데 시방 보기에 는 예수교인 밖에 능히 고쳐 행할 자가 없다 하노니 교 밖의 사람이 어떻게 일조일석으로 옛 풍속에 짓는 것은 변할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신문 5권 32호, 1901.88)

선교 초기 기록물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실제로 사회 전반에 병폐를 치료하는데 매우 열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학당의 문을 열고, 금주금연운동, 축첩제도 폐지운동과 함께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노름추방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여성과 가정에 관한 관심이 지대했음도 보게 된다. 그야말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려면, 속히 가정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



도 든다. 지난 십 여 년 사이, 곳곳에 세워진 복지관에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먼저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반 기업에서조차 앞 다투어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경영에 가족개념을 도입하고, 사원 연수 시 부모-자녀 혹은 부부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족들을 돌보도록 하는 홈 스위트 홀리데이(home sweet holiday) 휴가까지 제공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회는 선교세미나나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성장 관련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부부 세미나, 밀월여행이나 성 세미나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가정 목회는 그렇게 추상적인 구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돌볼 때 신자들의 부엌까지 쟁거보았다는 말을 예시로 새겨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성정이 말하는 '가정상'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에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전도서 9:9)

가정 사역에서는 위에서 말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가정에서의 제사장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결혼했다가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이 참된 만남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가정 사역이라는 말이 장삼물처럼 여기 저기 갖다 붙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정말 소중한 사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각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리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가정사역자 쉼의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교회는 가정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가정 사역이란 교회 조직에 딸린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선교와 같이 그것은 교회 생활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6



송진원 목사 가족생태학자  
행복연구소 하이패밀리 대표